

## 2-32. 수출용 단감의 선과 단계별 곤충이 제거되는 정도 조사

강창훈, 이규철, 강창현, 박정규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

우리 나라의 단감은 연간 227천 M/T이 생산되고 있으며, 감 재배 총면적은 2000년 현재 30.8천 ha로서 사과에 이어 제2위의 과수이다. 그러나 소비에 비해 생산의 과잉으로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단감을 수출하고자 하지만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해충문제를 이유로 아직 까지도 수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실험실에서는 2000년에 수확되어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과실을 대상으로 선과 단계별 어떤 곤충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경남 지역의 6개 과원에서는 선과단계별로 (각 단계별 93-100개의 과일을 조사) 조사하였고, 그 외 경남과 전남의 6개 과원에서는 수상과(樹上果)에 대해서만 (과원당 30~40개의 과일을 조사) 곤충의 존재정도를 조사하였다.

2000년에는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꼭지들림 피해가 많이 나타났는데, 과실의 꼭지가 들리면 그곳이 갈라지고 병균이 침입하여 검게 변하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없어진다. 수상과의 꼭지들림 과율은 11.6%이었으나 1차선과(농가자체 선과)와 2차선과 (단감조합 선과)를 거치면서 5.4%로 감소하였다. 노린재에 의한 피해과율도 수상과에서는 32.8%이던 것이 2차선과 후에는 4.9%로 감소하였다. 2차선과 후의 꼭지들림 被害果 5.4%나 노린재 피해과 4.9%는 그 피해가 경미하여 상품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었다. 단감의 꼭지 위보다는 꼭지 아래에 더 많은 곤충이 있었으며, 주로 독토기류와 응애류 및 총채벌레 등이었다. 이들 곤충이 존재하는 과율은 선과단계에서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수출포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들 곤충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